



생각을 쫓는 눈

EYES CHASING THOUGHTS

夜想別曲



이정은

LEE JUNG EUN

GAHOEDONG 60



지금 하나의 세상이 태어난다.

신 우주이다.

우주의 법칙은 거듭 옮겨가는 생성의 배꼽 속에 있다.

에너지가 소진되면 잠시 멸滅의 뒤로 고단한 반쪽 날개쪽지를 감춰버리는.

당신이 문득 세상에 씨앗으로 날아와서 피고 지는 이유.

풀이 돋는다.

그리고 하늘에 두 개의 달이 서로 물끄러미 박혀있다.

달과 그의 수줍은 그림자.

씨앗, 달 그리고 그림자

마음 방 한 칸에 쓴살같이 정수리를 날아 지나가던 수상한 공췌이라는 놈을 붙잡아 놓았다.

눈 깜빡 할 새 세상의 곳곳 어딘가로 스며들어 제 몸은 감춰 버리고 소문만을 부풀리는 가공할 만한 녀석이다. 몇 날 며칠을 차가운 골방에 자루 채 꾸깃꾸깃 쳐박아둔 그 녀석이 먼지 틈새로 뭉게구름이 피어나듯 어떤 기류와 충돌하여 부지불식 곁에 부풀어 올라 미확인 비행체처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녀석은 태생이 좀체 길들여지지 않는 외계에서 온 빨간 혹성 같아서 불현듯 난장을 치고 돌개바람 일듯 어디론가 달음질치기 일쑤다. 도무지 내 눈에는 허구한 날 부랑자마냥 개념상실에다가 천진난만 오만방자해서 천태만상의 우뚝을 자초하니 속수무책인 골칫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동자가 고요히 숨을 고르고 녀석을 거둬 쫓는 까닭은, 난데없이 달려오는 그 허술한 품새가 대담하고 난감하고 거침이 없으나 다시 췌으로 사라져가는 담담한 곁이 달빛에 몸을 실은 하얀 나비 춤사위 덧없는 탄식처럼 가벼워서 가당치 않게 아름다운 때문이다. 그 날의 그 장면부터였었던 것 같다. 나는 어느덧 메마른 해갈을 기다리는 모래 사막처럼 갈라진 빈 화면에 생각이라는 비호구름 같은 떠돌이 본체를 붉고 푸른 물감으로 흘리고 헤쳐 뿌려대며 충돌하고 쫓고 있다.

세상의 한 낮은 쓸데없이 들끓고 광채 나고 무겁고, 이미 생각이란 녀석은 결박 당해서 박제된 무기력한 식물종처럼 메마른 창백한 뿌리를 땅에 내려 달콤한 수액에 탐닉되어 고삐 풀린 제 버거운 하얀 날갯죽지를 꺾어 버렸다.

나의 혈벳은 생각이 날아가고 침략하는 그 곳은 우주의 한 송이 꽃처럼 소립자처럼 충만하게 존재하여, 광학 현미경을 들여대고 초음파로 잡아내도 쪼개고 다시 쪼개어도 만져지지 않는 오직 감지되는 어떤 감각의 아름다움의 풍경風景이며 일종의 금단의 땅, 잃어버린 제국, 중력에 지배당하는 질량을 가지고는 볼 수도 만져 볼 수 없는 혈벳어서 더욱 아름다운 광활한 대지인 것이다.

“사람의 눈은 세 개다.

영혼과 감각을 깨워 흔들어대는

감춰지고 퇴화된 거대한 푸른빛의 눈.

순간에 반짝여진 눈동자가 거칠고 생생한 생각을 쫓기 시작한다.

그 꼴(形)이 참 희한하다.

계속해서 꼴을 버리고 바꾸고 변신 중이다.

무엇을 집어 삼켜서 자라나는 꼴이고 무엇을 품어 놓은 꼴일까?

아름다움은 눈동자에 장미 가시처럼 박혀서 심장을 붉고 붉게 몰락시키는 한 순간의 영원함, 그 한 찰나에 있다.

나의 눈은 지금 한 뼘 사람의 뇌와 심장으로 꾸는

아름다운 색(色)의 꿈을 쫓는 꿈을 꾸고 있다.”

쫓는 자의 변辨. 2015년의 여름날 작업실에서



우주에 가득찬 노래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60 x 260 cm, 부분

“어떤 껍질도 맞지 않아.

벗고 벗는 탈피의 과정.

뱀이 허물을 벗고 또 벗듯이 제 몸뚱이를 가르고 쪼개어서

눈부신 하얀 살갗으로 달무리처럼 빛나고 있네.

헐벗어서 아름다운 나의 공중 정원이 여기에 있네“

반짝이는 먼 바다 위로 부서지고 파열하며 쏟아지는 태양빛을 응시하듯 해석을 거부하고 경직된 생각을 풀어주는 자유롭고 순진하고 때로는 거칠고 오만한 내 그림의 표면을 지켜 보는 것이 이제는 좋다.

그림은 무엇을 요구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으며 이해와 관념의 덩어리를 놓지 않는다. 물고기가 부레를 부풀리며 깊고 푸른 처음 만난 물 속을 유영하듯 나의 생각과 그림의 생각이 부딪히고 엉켜 화면 위에서 끌어당겨 지치도록 나뒹군다. 묘하고 흐릿해서 검은 눈동자로는 알아보기 어려운 어떤 지점에서 심장을 울려 증폭하는 생명의 인력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달의 운행에 이끌려 푸른 물결로 넘실거리는 대양의 파고, 나의 작업은 짓고 허물고 거듭 허무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지는 속 없는 모래알 장난 같은 진지한 놀이다.

시지프스의 돌.

생각 속의 여행.

순례자의 구도.

걷고 다시 걷는 그러나 뒤를 보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을 여정이다. 가슴 속 한 칸에 뿌리내린 결코 메워지지 않을 공허空虛의 바닥 그 심연에서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공중정원이 여기에 있다.

세상을 살다가 나 잠시 그 곳에서 머무름이 별스럽고 순하여서 좋다. 나의 생각이 붓의 끝을 타고 화면으로 옮겨 번져간다.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스스로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천계天界-아름다운 물 속의 사막. 끊임없는 변화와 그 치열한 순간의 생명의 중심에 자리한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절대적인 고요함이 대체 불가능한 지극한 아름다움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결코 만질 수 없고 움켜잡아 삼킬 수 없는 영원한 현재의 푸르고 붉은 순간의 꽃.

착각과 환상.

진실과 환영.

동굴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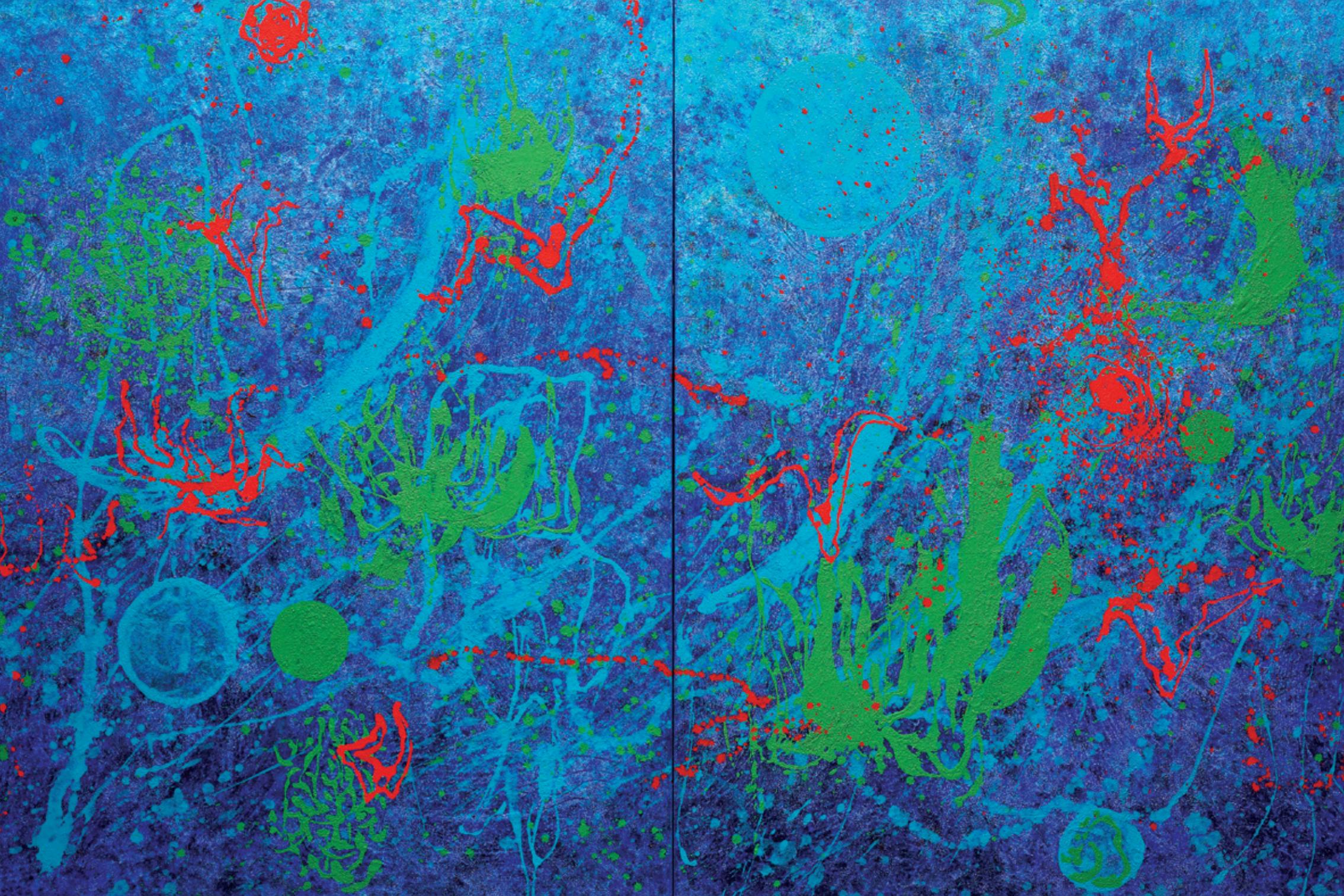
절대적 아름다움은 미련없이 사라지는 불꽃같고 섬광 같은 찰나의 향수, 그 파동의 그윽한 여운에 있다.

생명도 이와 같으니…….

그 감각의 정원에 농밀하게 가득하여 설핏 바람 한 자락에 코끝을 휘감아 농락하는 달큰한 향기가 좋다.

천 개의 달-하늘로 자라나는 뿌리-붉고 푸르게 몰락하는 덧없는 색의 아름다움. 하얀 나비 한 마리에 마음을 빼앗겨 아름다운 공중정원의 환영을 엿보고 만 어찌면 나는 뿌리를 품지 않고 꿈을 꾸는 어리석은 꿈꾸는 식물이던가?

아름다운 공중정원



소음을 걷어내고 예리하게 주파수를 맞추면

한결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이 노래.

난 석양이 좋다.

석양을 잡아 놓는 세상의 특별한 한가지 방법.

더욱 붉다.

나의 그림은 현상의 행간을 훑치는 그림이다.

언젠가부터 신의 섭리를 흉내 내고 훑치고 있다.

내 안에 사막의 고독한 선인장이 밤 도둑처럼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하늘 가장자리에 손톱에도 가려질 무심한 달 한 조각이

태곳적 그 날처럼 금빛으로 일렁이고 있다.

고독한 선인장

우주에 가득찬 노래

2015

한지, 석희, 모래, 안료

160 x 260 cm

화가는 <작품>이라는 주인의 거친 땅을 갈아 엮어 생명을 움푹이아만 하는 운명의 보이지 않는 끈에 결박된 포로다. 스스로의 아킬레스에 황금빛 울무를 채우고 빛을 쏘아보다 눈이 먼 어리석고 순진한 자들이 사는 척박하고 아름다운 영원의 유토피아-Utopia.

눈 먼 자들의 도시.

휴식이 거세당한 푸른 별을 품은 불멸의 낙원樂園

나 오늘 그 곳에서 빛을 잃고

길을 잃다.

참으로 짙은 어둠 깊은 밤이다.

머리 속만 속 없이 말갈게 개어오고 저 멀리 안개 우주 두터운 층 속으로 얽게 흘러지며 까마귀 떼처럼 끼룩대는 가뭇한 심장의 고동……

비상 혹은 추락.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

확고하고 거대한 인식의 녹슨 청동빛 빗장을 부수고 그림과 생각을 정면으로 마주 한다는 것. 세상이 눈치 못 챌 무한 궤도를 떠도는 미확인 흑성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와의 충돌. 염기서열에 섬세하고 꼬질하게 꼬여 흥건히 담금질된 붉은 피의 지워지지 않을 인장.

Toxic & Sweet lullaby. 치명적이고 아주 달콤한 그녀의 자장가.

치명적이고 아주 달콤한 그녀의 자장가-Toxic

The Red-Becoming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80 x 240 cm



붉은 색은 무엇인가!
 지금, 뜨겁게 소용돌이치는 정신의
 한 울혈된 상태를 잡아내고 있다.
 차갑고 붉은 뜨거움.
 해가 뜨고 달이 차고
 해가 저물고 달이 이지러지고,
 말미암아 우주가 돈다.
 시간과 공간이 무언가에 이끌려서
 거미줄처럼 날줄과 씨줄로 뒤엉킨다.
 아름답다.

나의 화면에는 지속적인 교차가 일어난다.
 지속적인 현재가 어딘가에서 날아 온 모르스 부
 호처럼 웅웅대며 존재를 지치도록 타전한다. 붓
 을 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짐작하고 쫓는
 것으로 족하다.
 그 교차된 시·공의 웅덩이에서 생각이 움트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풀이 나고 해가 튀어 오르고
 달이 낙하하고 홍염의 붉은 공간으로 물들고 녹
 슨 태양빛처럼 녹아 내린다.
 새로운 출현이다.
 공간의 기원!

p18-19

Journey to Red-생각꽃기1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12 x 145 cm

p20-21

Journey to Red-생각꽃기2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12 x 145 cm



붓끝에서 주술처럼 화면 위로 쏟아져서 흘러지고,
도마뱀처럼 화면 속으로 꼬리를 끊어내고 달아나
는 충동적이고 즉물적인 점과 선과 색,
그 흔적들을 빠르게 쫓아가며 막 튕겨 오른 이유
모를 단호한 점과 선. 형으로 인해 뇌와 눈동자가
요동치며 시신경을 조여온다.

점이 선이 되고 형이 되고 안이 되고 밖이 되고
서로의 간섭-길항-충돌로 인해 거침없이 변해가
고 관계되어지고 말미암아 파장과 방향을 바꾼다.
번져가며 고착되어지고 스스로 단호한 거침없는
떠돌이 흑성 같은 숨쉬는 내 그림을 바라보며 가
끔씩 생각한다.

생명이 오는 길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명은 그 존재함으로 이미 어떤 의미로 가득하
다. 영리하고 단단한 의미로 물든 단어로 치환 불
가능한 생명에 가득한 신비로운 힘의 無의미 의
미 너머의 어떤 '영원한 찰나'의 모순된 그것이다.
나의 그림은 感으로나 파악 가능한 순간의 그 한
단면을 싹둑 끊어보는 느낌이다.

형상과 색채의 교감과 희락의 장난질 속에서 어딘
가에 나뒹굴고 있는 태고의 비밀을 움켜쥔 고대의
파편 한 조각을 마주친 듯 화면이 나를, 내 눈과
손을 재촉하고 감성을 촉발하고 심장을 두들기고
스스로 점등된다.



나는 오래된 무언가를 시간을 들여 들여다 보는
것이 참 좋다.

사람이 관계한 것보다 사람 또한 돌멩이처럼 그
것으로 관계 되어진 그런 시간성의 물질, 혹은 보
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놀이 삼아 가늠해 보기를
좋아한다. 어느덧 나의 그림이 물이 스며들듯 내
생각을 닳아가고 있다.

붉게 화면을 점령하고 심장으로 밀려오는 붉은 기
운이 서늘하게 일상으로 무뎠던 정신을 깨운다.
그림은 나의 정신을 깨우고 별안간 세워 일으키
는 특별한 그 무엇이다. 그 느낌이 감각을 자극하
고 맛있다. 스스로 제 존재를 산다.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는 아생의 아름답고 추한 카
멜레온을 가슴 속에 한 마리 품어두는 이유.

생명이 거둡나고 알을 깨고
증폭되고 피어나고 합승한다.
우주다.
자연이다.
나다.

태양의변주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30 x 162 cm



가슴을 깨고 그 안에 묻어 둔 또 하나의 가슴이 일어나는 시간.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익명의 모호하고 불안한 세포들.

돌보지 않는 곳에 쌓여지는 먼지처럼 불안은 모호한 뿌리를 사방으로 내리고 흑성처럼 내 주위를 맴돌고 자리난다.

가끔씩 정신의 축수가 지극히 예민해져서 현실을 쪼개어 감지되는 신기루의 초감각공간.

점점 희뿌옇게 사라지고 있는 창문 끝에 걸린 반쯤 이지러진 달이 낯설다.

곧 사라질 창백한 달의 그림자. 망상 혹은 환영.

사람의 마음으로 달은 사라지고…….

그림자의 궤적이 공기를 따라 무디고 조용히 흐르고 있다.

Moonlight shadow

태양 혹은 달의변주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30 x 162 cm



하늘 속에 날마다 드러나는 천 개의 달이 있다.
천 개의 달과 또 하나의 달.

인간은 사실과 현상과 지식이라는 괴물의 환영
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서 이미 촉각할 수 있는 동
물적 본능의 초감각의 아름다운 영역은 퇴화 당
해 버렸고, 이제 사람의 붉게 흐르는 더운 피로도
곰팡이처럼 서서히 번식하며 몰려오는 세상의 정
체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스스로 알아낼 수 없
게 되어버렸다.

방언의 방언을 하고 소문의 소문을 듣고 추측의
추측을 하고, 모방의 모방을 거대한 공룡의 배설
물처럼 도처에 쌓으면서, 위대한 신이 부여해준
당신의 사람의 DNA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
는 공모되고 영리한 침묵 속에서 페로몬의 냄새
를 따라 줄을 지어 나아가는 개미군종처럼, 부지
런히 각인된 각각의 생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 단
지 재촉하고 또 재촉할 뿐이다.

천 개의 달

달의변주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30 x 162 cm





푸른 해가 지고
붉은 달이 지고
파르라니 꽃잎이 지고
술한 날이 지고
덧없이 숨이 지고
꿈결인 듯 비틀대는 바람인 듯
지척에서 객적은 한 척 세상이 휘이 지더라.

畫中獨白

어느 날 난 무심코 알았거든.
열어둔 창문 틈으로 파고들어 내 코끝을 찡하게 휘감는 살풋한 바람 한 자락에 세상이 바뀌더군.
물고기의 아가미처럼 나의 살갓 속 어딘가 감각의 한 모퉁이에는 선홍빛 아가미가 숨쉬고 있어. 물살을 가르며 세상을 유영하다가 아가미 한 쪽이 불현듯 총혈되어 붉게 물들어 오면 부레 가득 숨을 쉬어 포말을 일으켜서 허연 뱃속을 부풀려야 비로소 거친 숨을 재우고 평온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난 무심코 알았거든.

내 안에는 나조차 돌보지 않는 돌볼 수 없는 사막이 있어 그곳에서 돌아나는 초록빛 선인장처럼 증식하고 분열하는 감각들이 흑성처럼 자라나고 있어.

가끔씩 저 멀리 일렁이는 화산을 바라보듯 내쳐 두려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으면 불안이라는 존재의 축수로 연체 동물처럼 꿈틀대고 나를 거듭 도발하고 충돌해 오거든.

신화 속 시지프스의 돌이지.

천형의 돌이거나 혹자는 운명의 돌!

그런데 무시하고 담아두고 묵묵히 거기 버려두기에는 생각보다 꽤나 묵직하고 어지럽고 강렬해서 가끔씩 어리숙한 의식이 잠식 당해 미로의 숲을 맞닥뜨린 듯 길을 잃곤 하지.

문득 아릿한 상실감이 검게 삼시간에 집체만한 파도가 되어 의식을 덮쳐온다. 세상을 덮어버리고 점멸시켜 버리기에 충분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의 불안.

미지未知의 구름.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적월청공 赤月靑空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7x97cm



이미 견고하게 사슬에 얽혀서 고착된 명제 혹은 진실이란 그 물
길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참으로 허술한 토대 아래 연약한 뿌리
조차 내리지 못하고 연체동물마냥 부유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 한자리를 얻어 갖고 불현듯
그 한 자리가 새롭다.
값 없이 받은 생명.
값 없이 받은 먼저 있었던 자들의 유산.
길에서 길을 묻다.

불멸의 세계.
음악은 어느 면에서는 절대순수 영역을 지닌 유일한 예술인 것
같다.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해석을 반대하는. 의미를 붙이고
의미를 깨내는 작업. 과연 그 의미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어떤 종
류의 의미를 지녔는가!
결국 모든 것은 소통을 위한 또 하나의 설명일 뿐이고 의미의 본
체는 정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날이 풀리면 녹아 떨어져 나갈 빙산의 일각!
그건 결국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사람은 호기심을 충족하고
불안을 증식하는 정체를 속이기 위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아주 잠
깐 엿볼 뿐이다.

적출어람 赤出於藍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7x9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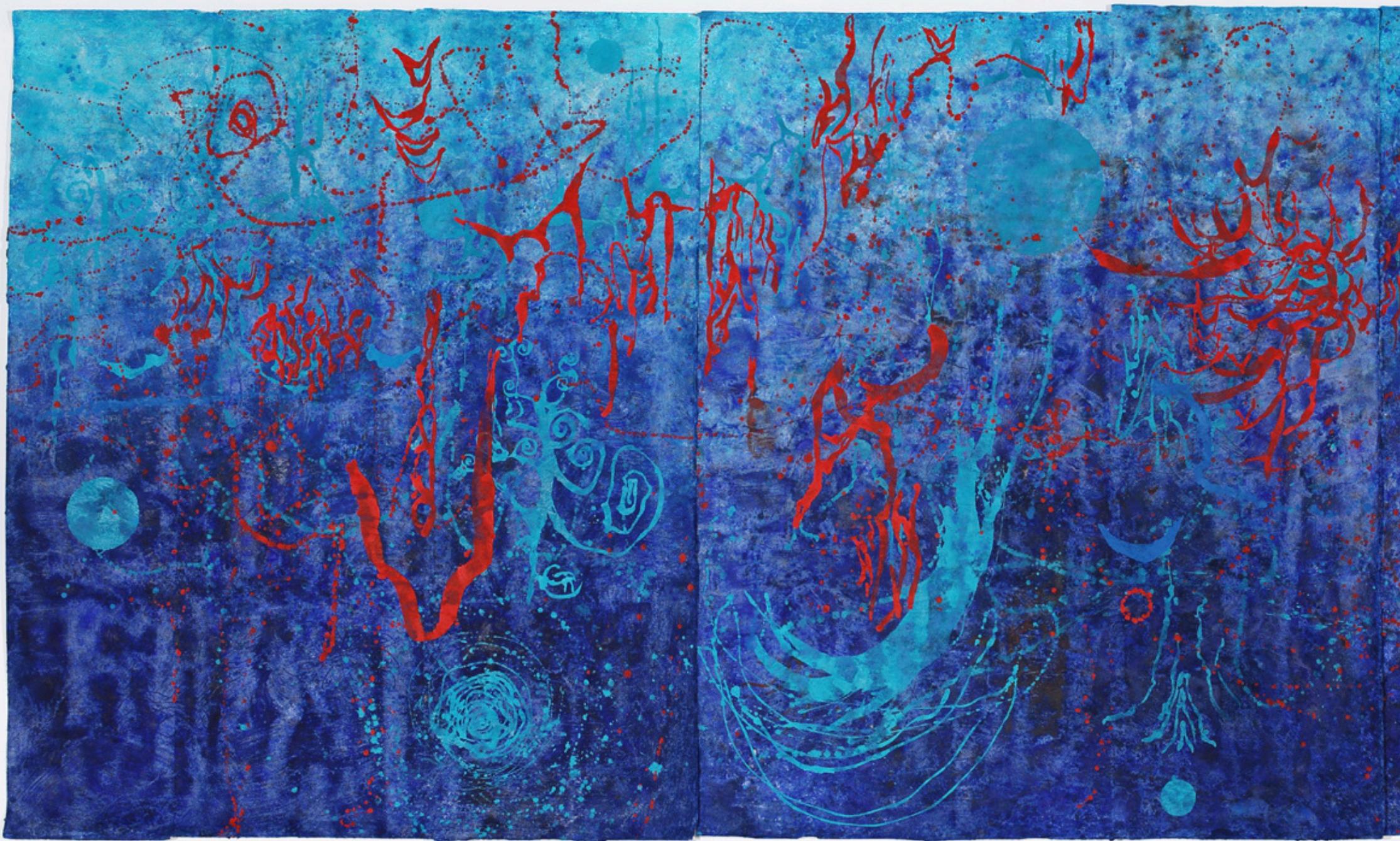




그림 <돌아난 우주>에 붙이는 詩

한 숨에 세상이 씨를 품고

한 숨에 세상이 홀연히 툭 자라나고

한 숨에 어디선가 웅숯음친 푸른 물 천 길의 갈래

굽이굽이 돌아드는 푸른 나선의 소용돌이 말미암고 부쉬지는 그 틈 사이로.

거미 한마리가 허공에 그물을 엮어 그 세상에 제 한 몸을 칭칭 가두듯

개미 한마리가 실 틈 없이 페로몬을 쫓아 재게 붉은 땅을 훑어 흔적도 없이

세상의 틈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져가듯.

푸른 바다

더 푸른 하늘

더욱 더 푸른 청공의 그 끝

태초의 암흑의 혼돈을 내딛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블루홀 그 곳에서

지금, 우주가 돌아나고 있다.

땅의 혈맥에서 파릇한 싹이 돋고

세상의 배꼽에서 고성 높여 사람이 돋고

거침없이 활달한 무한 공간의 자궁 속에서 에머랄드빛 푸른 벌거숭이 별이 돋고

차갑고 푸른 기운 범람한 청공靑空의 끝, 막다른 그 곳에서

불의 전사와 같이 홍염에 싸인 붉은 우주공간이 돌아.

돌아난우주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220 x 540 cm



장난처럼 숨결 속에 신이 감춰놓고 달아난 수수께끼

깊은 여름 밤 풀벌레 청아한 구슬픈 소리 한 자락에서 무심코 돌아나는 아름다운

또 하나의 우주가 여기에 있다.

낙하하는 빗방울의 차가움으로

후두둑 후두둑 한 방울의 우주가 도처에 한없이 돌아나고

풀 한 줄기 제 흥에 겨워 까닭없이 한 줌 단단한 붉은 흙을 뚫고 돌아나고

속눈썹에 내려앉은 당신 마음 고틀머리 파닥이는 떨림에서 특하니 거친 생각이 돌아나고

속없는 나의 한 붓이 지나간 마음 깊은 그 곳

캄캄한 우주공간 질푸른 상념의 바다 속 적멸하는 붉은 태양의 그림자 드리운 위로

휘영청 밝은 달이 차오른다.

천개의 달

태고의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우주의 비늘.

지금 눈앞에 뿌려지고 이겨지고 흩어지며 출현하는 푸르고 붉은 우주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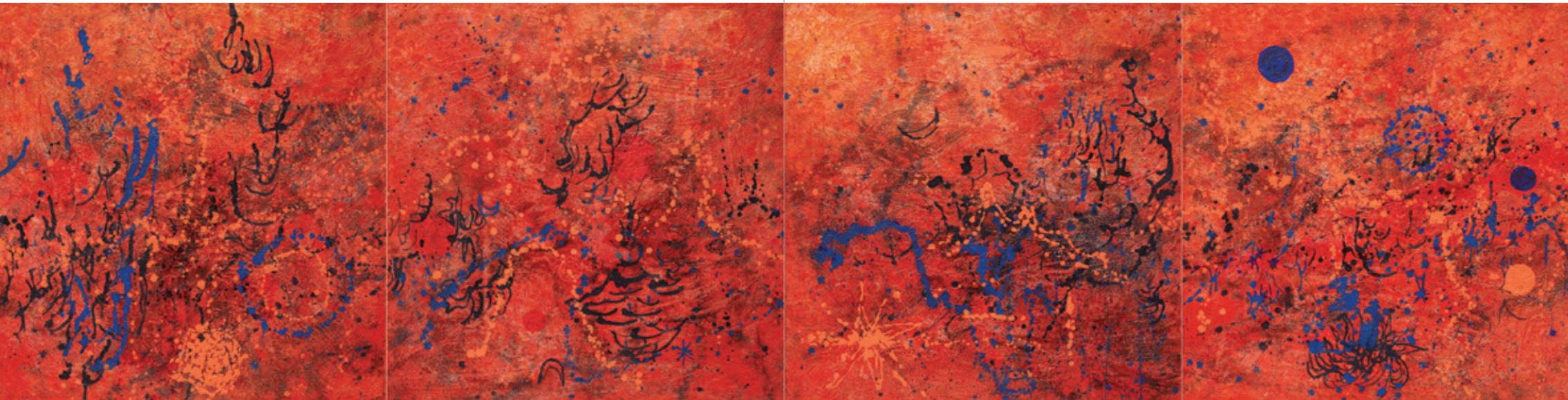
무심코 울려 퍼지는 현의 노래.

아름답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제 걸을 탈 때 더없이 그러하듯……!

버려야 한다...
마음을..... 생각을..... 무게를...
내려놓고.....
감각으로.....
깃털의 한없이 부드러운 촉각으로...

비행의 조건



봄밤이 깊다.

아침한 밤을 통과하고 몸과 그 한 몸을 지배하는 기를 소진한 작업 후에 탐하는 한 잔은 신의 음료 암브로시아를 훔쳐낸 것처럼 새끼발가락 끝 혈관까지 침범하여 뇌의 축수를 도발한 듯 4월의 복사꽃 흐드러진 반란처럼 향기롭고 강렬하다. 세상 다른 곳에는 머물지 않는 허랑한 듯 떠도는 쉽게 잡히지 않는 도도한 이 향기. 예술이라…….

야상별곡 夜想別曲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7x97cm x 4

거대한 시간이란 무게에 짓눌린 차갑고 냉철한 사물과 빈틈없는 현존에 연금술사의 추를 흔들어서 냉각된 붉은 심장을 덥혀 숨을 부풀리고 움켜쥐는 환영의 藝術! 지루하고 뜨듯한 무거운 현재를 비틀어 버리는 이 무모함이 좋다. 그리고 현재를 나르는 이 생각이란 놈이 지극히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생생한 현존의 즐거움!

비록 태양이 거듭 밝아올 때면 번덕스러운 아누스의 싸늘한 등을 보이고 날카로운 얼음파편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서 세상의 계곡 틈새로 사라져 버릴 지라도…….

4월 어느 봄날의 밤- 夜想別曲



사람의 안에는 누구에게나 본래 배꼽처럼 우물이 있다.
그러나 모두들 그 우물을 찾아 매일 거리로 나선다.
우물은 한 낮의 작열하는 태양빛에 반짝이고, 잔잔히 달빛을
담아 언제나처럼 그 곳에 일렁이고 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이
꿈은 우물을 들여다 보지 않는다. 하늘이 대기의 먼지를 모
처럼 다 거두어 간 듯 몹시도 푸르다. 속 없이 푸르다. 한 없
이 푸르다.

그 안에 태초의 푸른 물 이랑을 숨기고서
지금, 당신의 우물이 고요히 일렁이고 있다.

당신의 우물이 일렁이고 있다

야상별곡 夜想別曲 - nocturne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7x97 cm



새벽 4시.

깊은 밤이다. 검은 밤. 곧 어둠이 걷히고 빛이 터울 터.

척 멘시오니의 <산체스의 아이들>을 들으며, 작업을 마친 후
찾아오는 나른한 피로감이 좋다.

내 불안을 먹어버리는 화면을 바라보며, 내 혼돈을 먹어버리
는 화면을 바라보며, 참 희한하고 모호한 뿌연 안개 같은 안도
감이 잔잔히 번져온다.

노동자의 꼴이 된 파랗게 얼룩진 손으로 변한 내 희멀건 게으
른 손이 이제야 편안한 모습이다.

4월의 어둠 곳곳에는 복사꽃 향기가 흐르고, 벚꽃의 꽃잎들이
어둠 속에 봄바람을 타고 조용히 나부낀다.

곧 세상의 끝으로 이지러지고 떨어져 버릴 처연한 꽃잎들의
반란을 무심히 바라보니. 마음 한 켠이 문득 살며시 붉혀지고
조용히 낙하한다.

질푸른 우주의 밤하늘에 벚꽃잎 한 자락 올라가니, 내 마음 하
늘 위에 망연히 한 빛 어둠을 가른다.

모처럼 아주 깊은 밤이다. 달빛이 어둠에 가려진 탓으로……

벚꽃 이지러지는 4월의 밤

야상별곡 夜想別曲 - impromptu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7x97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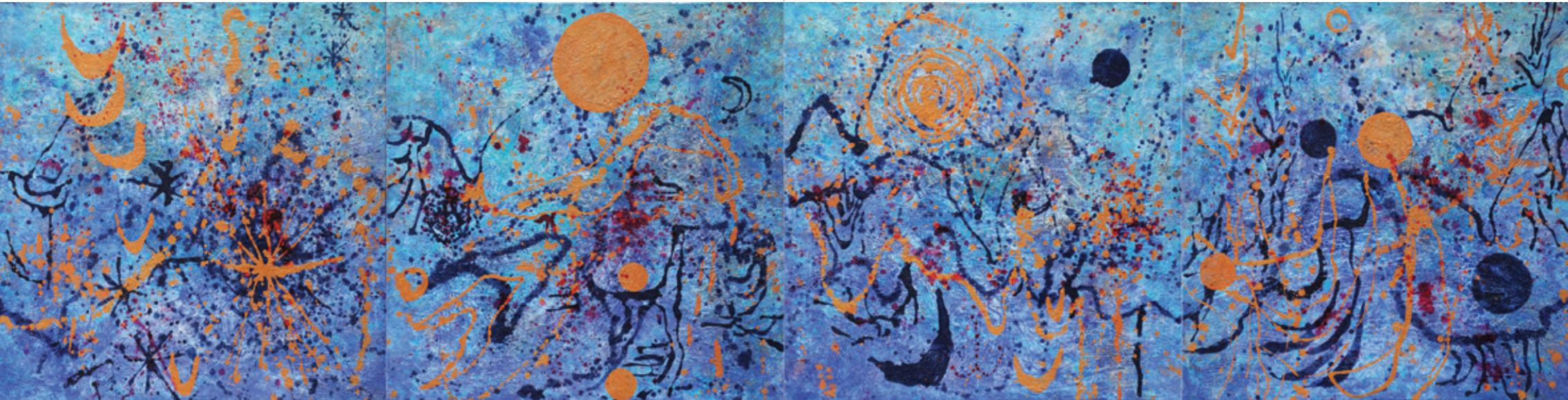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거듭 가 라



저기 춤추는 별,
이미 시간 속으로 사라진
슬픈 흑성의 빛이 환영으로 나의 가슴을 아릿하게 파고든다.
차가운 가을밤,
새벽의 캄캄한 이국의 검은 하늘 위로 번져오는
열게 파르라니 떨어오는 無心한 파장.

생명의 춤 Scene 1-2-3-4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7x388 cm

이유 없이 별들이 태어나고 이유 없이 별들이 죽는다.
이유의 있고 없음의 이유.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보이지 않는 이유.

저기서 명멸하는 춤추는 별은
이미 몰락한 고대 왕조의 황금빛 왕관에 깃든 녹슨 기억처럼
한줌에 사라질 얇은 껍질로 빈 몸뚱이를 벗어놓고
우주같이 거대한 뇌의 심연으로 사라졌다.

저기 춤추는 별이
제 스스로가 품은 이유로 영원히 멈추지 않을 춤을 춘다.

저기 춤추는 별



자기로부터 무한히 자유로운 자가 진실로 거침없이 달콤하고
거대한 참 자유를 얻을지니
에덴의 평화와 영혼의 심은 그 치열한 혁명 뒤에 있다.

이 땅에 두발을 딛고 사는 자 중 참 자유로운 자 누구인가!

차라리 우매한 백치의 순구함이 속없이 아름답다.
결국 당신의 삶이 정글 진창 속 그물망에 낚아 채여서 뒤척이
는 헛된 한바탕 꿈이라면,
비록 그대가 지금 고통치는 붉은 혁명을 꿈꿀지라도…….

그대가 지금 붉은 혁명을 꿈꿀지라도

생명의 춤 Scene 3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7x97 cm



심장과 손을 지배하는 감각의 촉수가
피와 살을 덮혀 생명을 끌어 올려서
세상을 사는 한 객체인
나라는 변별된 종을 통해 퍼트리느 노래.

내가 만난 예술.
내가 걷는 예술.
그 생각의 품이 경계가 없고 격의도 없고 가능할 수 없으나
넉넉해서 좋다.
확책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아서 좋다.

수 많은 설과 궤변과 잣대가 줄을 서고 탑을 쌓고
무법 증횡 하는 이 세상에서
우매한 열성으로 선택 되어질지라도.

공간의 기원

생명의 춤 Scene 4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7x97cm



푸른꽃이 피어나고 있다.

수수께끼는 답이 없는 질문이다.

답이란 없다

거듭 묻고 묻는 과정 속에서 엉겅퀴처럼 쑥쑥 자라나고 깊어질 뿐이다.

답이란 한낱 동네 어귀 그 꼬트머리에서 동강난 막다른 골목이다.

곧 한숨에 날아가버릴 정수리를 돌아맨 간지러운 재채기이다.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아득한 섬이다.

수수께끼는 답이 없다 Enigma



생성공간-Enigma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30 x 160 cm

예술... 전적으로 제 시대이거나 제 삶을 온전하게 껴안은 한 인간의 몸과 혼을 섞
어서 빅뱅처럼 절묘한 우연으로 태어나는 그것!
중요한 순간은 절대적이고 뜬금없는 우연한 그 순간의 새로움을 낚아채는 날카롭
고 굶주린 서슬 푸른 눈동자에 있다.
아직도 낭만적인 허세로 부푼 마음이 주절이는 변명이려니.....

예술 찬미론자의 변辯

꿈을 꿀 것인가? 부술 것인가?
답은 없다. 선택의 문제다.
모든 생의 늪은 여기서 출발한다.
꿈꾸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
늪을 안는 자와 늪에 빠지는 자가 있을 뿐이다.

꿈꾸는 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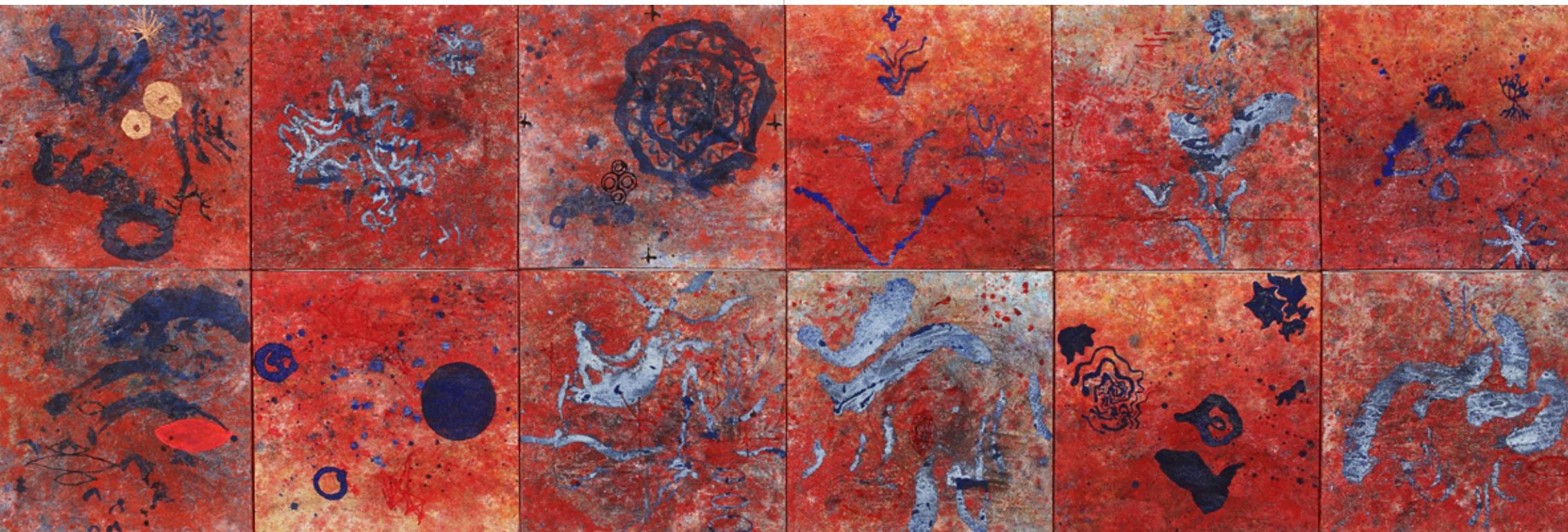


어떤 아름다운 풍경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30 x 160 cm



Landscape-Kind of Red

2013

한지, 석회, 모래, 안료

45 x 45 cm x 12



달은 숨구멍이다.

푸른 달이 하나 둘 뜨면 청명한 산소가 공급된 듯 머리가 쉬어지고 더덕지고 시원해진다.

화면에 뜬 푸른 달의 기운으로 푸른 꽃이 점점 피어난다.

꽃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모든 피어나는 것은 꽃을 닮았다.

꽃잎은 나무가 되고 별이 되고 하늘이 되고 바람이 되고 물결이 되고 별이 되고 생

각이 되고 화면 위에서

너울너울 하얀 나비처럼 춤을 춘다.

달 훌릭 Lunatic

푸른 꽃이 피어나고 있다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30 x 160 cm, 부분



조금씩 더욱 붉다.

꿈틀대며 달려오는 붉은 정체.

세상의 어둠 한 귀퉁이를 붉게 태워서

푸른 꽃으로 피어나다.

모든 상상에 최면을 걸고

모든 생각에 마음을 거는

멈춘 듯 흐르고 흐르는 듯 멈추는,

이쪽인 듯 저쪽이고,

이것인가 하면 문득 그것이 된다.

날은 빠르고 해와 달이 쉽 없이 재게 교차한다.

새는 하루 종일 날아도 흔적이 없다.

생각이 무릇 그러하듯.

붉은 이유

푸른 꽃이 피어나고 있다

2015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30 x 160 cm

내 그림은 하얀 나비 팔랑거리는 날개짓, 나풀대는 바람 한결에도 흔들리고 엉켜
지는데…… 내가 묵직한 생각이라는 돌을 얹어 놓았구나……
중력을 견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음은 태생이 춤을 추며 떠돈다……
유리알 유희.

하얀 나비

걸어도 흙이 묻어나지 않는 땅.

무언가 잘못 되어가는 건 아닐까? 사람의 조건으로 사람을 이루고 조작 되지 않은
행복한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데는 어느 결엔가 더 이상 자연스러움이 아닌 용기
와 담력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긴 하루를 습관이란 놈에게 지배되어 살면서 나의 발로 세상을 다닌 적이 언제였
던가 싶다.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이식되고 이종된 것들이 모여 사는 왕성한 욕망의 변종잡식군.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이유로 한 없이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쉽게 부패한다.

사람들은 이미 자유를 알지 못하고 경계하고 의심한다.

유리알 만화경 같은 아름다운 안식처.

잠시 동안만 머물도록 명명 되어진 사물에 깃들여 있는 허영과 오만의 속성.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가득 채워지길 습관처럼 원한다.

사람의 마음



화면 속에서 태어나는 에너지를 묵도하고 풀무질하는 것.

세상에 없는 낯선 느낌.

생각을 시작하고 색과 점·선의 흩어짐으로 악동하고 무한한 팽창을 한다.

제 리듬으로 증식 팽창하고 치열하게 엉겨 다투고 속없이 살을 부비고 엉키는 모습으로 내 머리가 비워지고 가슴이 깨어난다.

그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좋다.

세상에 제 힘으로 홀로 드러나는 것들의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과 대범한 기개가 좋다.

드러내고 미련없이 사라지고 혹은 거침없이 존재를 울리는 그 방식이 좋다.

어느덧 자연을 닮아있다.

자연을 닮다

증식하는 아름다운 상상 - 다층구조공간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1 x 73 cm



빗방울처럼 문득 어디선가 툭툭 떨어지셔 망막에 흠어지는 선율이 좋다.
처마끝에 굴절되고 투명하게 튕겨대는 소리가 좋다.
물방울이 나뭇잎을 두들기고 오선 위에 대롱대롱 굴러다닌다.
말을 없애고 소리를 없애고 비로소 올려 퍼져오는 순하고 청명한 멜로디에 낮에 만
난 멀미나는 잡스러운 생각이 쉬어진다.

생각이라…….
뭐 별스런 것도 아닌 게지.
보이지 않는 이 노래를 종일토록 흥얼대고 있다.
빗방울 방울방울 쉬지 않고 떨어지는 싱그러운 오후.

빗방울 변주곡

증식하는 아름다운 상상 - 다층구조공간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1 x 73 cm



나는 그림으로 선동질하거나 당파질하거나 학당질하며 사람의 이름에 분가루로
회칠하는 판놀음을 보는 것을 혐오한다. ISM은 훗날 사가들이 역사와 그 시간에
갈피를 꽃고 의미의 축을 세우기 위함이지 어디서 퍼다 지은 지 모를 알곡으로 지
은 설은 밥과 거친 포획물에 둘러앉아 삼지창을 꽃는 싸구려 잔칫상에 배를 채우
는 졸렬한 승자독식의 동물의 사육제-카니발은 아니지 않는가?

세상을 둘러보니 예술은 귀하고 맥빠진 거품 가득한 싸구려 축제는 도처에 성하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예술 멸종시대를 구제하는 것은 영리하고 튼튼한 공
모된 결탁의 화려한 변종의 예술인가!

몰락하는 시대의 이성과 감성.

화학 첨가물로 뒤범벅된 뜨거운 영혼을 제거한 유통기한에 소모되고 파기될 상
품들.

공모되고 공인되어 이미 시한부로 내재된 태생적인 암묵적 죽음.

집단 자살묵인 방조-조작된 은밀한 타살-예술 살인자의 건강법.

예술 살인자의 건강법

증식하는 아름다운 상상 - 다층구조공간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1 x 73 cm



걸어가야 보이는 길

결국 공중에 열린 길이던가.

까치걸음 발 끝 앞에 길이 열리고 눈 닿는 한치 앞은 천길 낭떠러지구나.

구름 위를 유유히 걸어가는 자.

얼마나 속 없고 무모한 자던가.

자욱한 안개의 겹겹 친 베일을 두 손으로 흘으며 새벽 여명을 뚫다.

색깔이 다하고 다하니 다시 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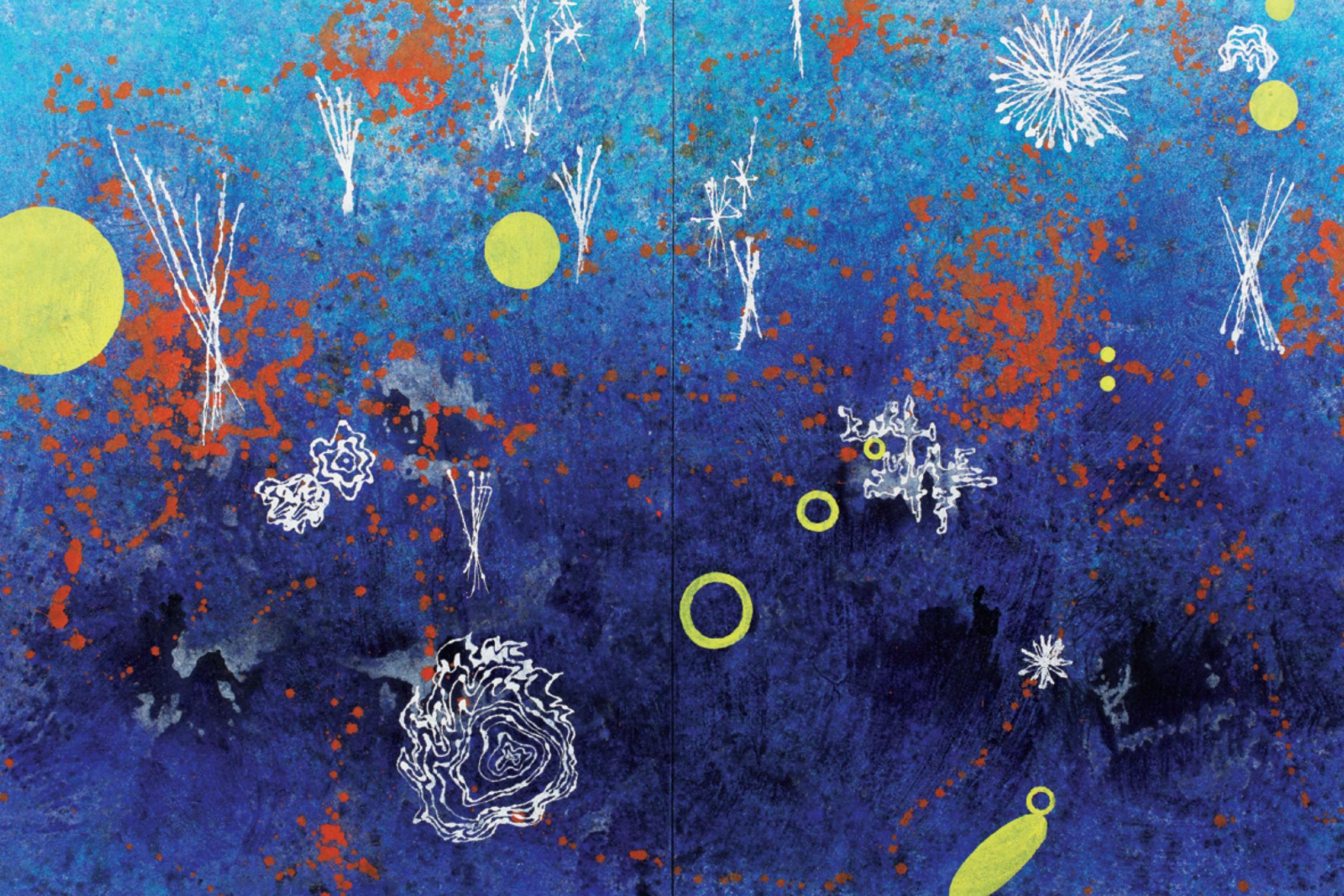
여름 밤을 걷다

증식하는 아름다운 상상 - 다층구조공간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91 x 73 cm



생각을 익히고 있다.

한 여름 폭염에서 튀겨 나온 푸른 색의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서 가벼운 현기증처럼 어지럽다. 나는 내 구속된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 바탕 모 든 지상 거류민의 그 단 하나뿐인 자기 앞의 생을 저지르고 있다.

빛의 잔상, 생각의 잔상, 잔상의 잔상. 결국엔 가차없이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질 어 제 이미 죽은 소음, 공전하는 메아리일지도 모른다.

곧 억지로 익혀서 씹혀 내팽개쳐지든지, 혹은 우주의 우연의 주사위에 요행히 멧 지게 굴러진다면 제법 맛있게 익을 것이다.

날 것과 익은 것. 그리고 씹은 것.

맛이란 혀의 돌기를 포함한 뉴우런과 뇌에 지배당한 신경세포 그물들의 감각 경험 치 아니던가. 새로운 맛의 출현 - 혹은 조악하고 수상한 변주.

거듭 날 서고 낮 선 생각들을 화면 위에 뿌려놓고, 묵은 생각들을 털어내고 울림을 울릴 수 있는 텅 빈 가슴 공명통 하나만 호기롭게 들고서, 넘실대며 밀려오는 한 물결을 고른다. 그러다 보면 생의 모퉁이에서 '삶은 신의 장난이다!' 라는 생각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가끔씩 있다.

상호이하라는 시약의 리트머스지 위에서 확연히 <섭리-혹은-장난>으로 변별당해 후다닥 게걸스럽게 삼켜 버려지는 정체. 그 본체는 거대한 공룡 같은 빙하에 갇혀 얼어붙어서 소문에 의해 짐작되고 떠돌 뿐 저만치 세상 밖에 있다. 결코 범접을 허 락하지 않는 상상과 환상의 부재의 섬-네버랜드Never Land인 것이다.

Deep Blue sea in the Moon

2013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46 x 224 cm

다시 한 번

바람자락 한 곁에 여름 창문으로 날아든 무당벌레 한 마리처럼 생각이 슬그머니 도발된 파도의 한 끝자락에 올라 덮쳐와서 부풀고, 광폭하고 시원한 포말로 거칠 게 깨어진다.

하얀 날갯죽지를 펼쳐 창공을 가르는 새의 비상처럼 두려움 없이 그 물결을 타래! 여름 한낮이 한없이 길던 유년시절 허끝에 달콤하게 감겨와 목구멍을 펴 뚫는 처 음 활아먹은 짜릿한 박하사탕 같은 생경한 시원함.

그것이 두려움 없는 <쾌>의 즐거운 맛이다.

익혀야 맛있는 것과 두려움 없는 <쾌>의 즐거운 맛에 관한 생각



Blue Dream

2013

한지, 석회, 모래, 안료

53 x 40 cm



Blue Dream

2013

한지, 석회, 모래, 안료

53 x 4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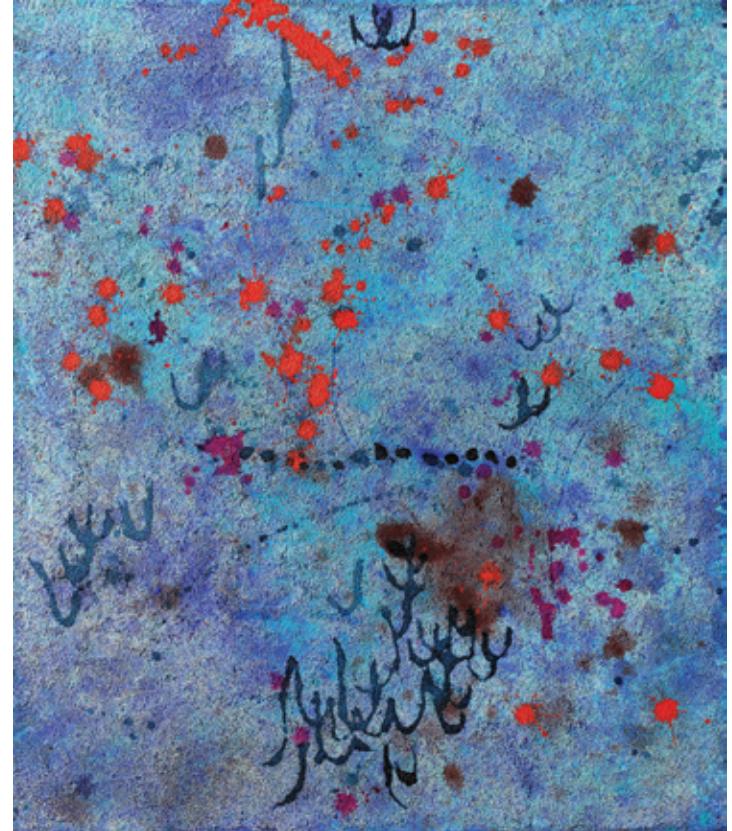


Blue Dream

2013

한지, 석회, 모래, 안료

53 x 40 cm



Blue Dream

2013

한지, 석회, 모래, 안료

53 x 40 cm



마일즈 데이비스의 낮고 깊이 가라앉은 연주를 듣고 있다.

Kind of Blue 그리고 All Blues.

작업을 펼쳐놓고 흐트러진 마음을 내려놓고 선율에 마음을 얹어서 가슴을 해방시키는 시간……. 정말 오랜만이다. 나와 마주 하는 시간. 나를 잊어 버리는 시간. 작업의 묘미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참 아름다운 소리다. 한껏 가라앉은 마음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라와서 가벼워지고 있다. 조금 전까지 바닥에 펼쳐놓고 물감을 흐트러뜨린 노란색 화면이 원래부터 그렇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생물처럼 창백하게 흥건한 물기를 뺀내고 서서히 고착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잠 속으로 달아난 시간.

질은 어둠에 잠식당한 남겨진 도쿄의 밤. 심장이 물들지 않는 타인의 땅.

창 밖으로 점점이 우주의 별 빛처럼 박힌 희미한 불빛이 우울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진다. 내 안에 자리한 블루. 이제 밤이 깊고 마일즈 데이비스의 연주를 따라 밤의 더욱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 동안 쌓아둔 상념들을 더 이상 존재치 않을 시간 속으로 밀어낸다.

비어진 마음.

Blue in my mind.

생의 부활.

가득 찻던 마음들을 검은 땅 속에 묻고 넘실대는 푸른 파도 한 자락을 탄다.

차갑고 아름다운 영원한 Blue.

안식의 푸른 땅.

Blue in my mind

Blue in my mind

2014

한지, 석회, 모래, 안료

196 x 91 cm

나는 직선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거침없는 투명함이 좋다. 여행자의 지친 발과 마음을 잠시 세우는 생생한 문장 부호 같은 그러한 느낌이 좋다. 음악이 귓가에 울려 마음 속 우울 깊은 곳까지 빛처럼 꽃혀 들어와서 울려 퍼지듯, 그림 또한 그러한 것이 좋다.

푸른 물속 천 갈래 푸른 물결 사이로 푸른 뼈가 자라난다. 린트겐 사진 같다.

전설과 신화 속 그들처럼. 우리가 우주라 부르는 쌀 한 톨에 가득한 생명의 엄함처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딱딱한 내 껍질의 내피와 외피를 눈을 감고 더듬어 보는 작업. 무엇이 그 속에 있을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당신들이 이미 퇴화시켜 봉인한 차가운 깊은 곳에 던져버린 그것일지도 모른다.

손가락 끝 지문에 아로새겨진 희미한 사람의 아들의 기억.

푸쉬케의 거울.

낮선 듯 아련한 새벽녘 어스름히 터오는 생을 밝히는 이 따뜻한 기운.

이 진화의 게임의 법칙은 없다.

거듭되는 돌연변이

감각적인 예민한 촉수.

부풀어 오르는 심장

정수리를 붉게 물들이는 빠른 쾌.

잔잔히 빠져드는 생각 속의 락樂

저기 멀리 아른대는 손끝에 닿을듯한 영원한 환상의 섬.

환상의 섬에 법칙은 없다





갈아엮어진 회화의 대지

이선영 | 미술평론가

회화는 결국 물감으로 뒤덮인 평면이라는 모더니즘적 언명이 있기는 하지만, 회화적 논리의 정점이자 회화의 종말을 암시하는 순수한 평면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갈아엮어졌다. 그림만큼이나 틈틈이 써온 이정은의 시 같은 단상에 ‘...화가는 작품이라는 주인의 거친 땅을 갈아 엮어 생명을 움푹窪아만 하는 운명의 보이지 않는 끈에 결박된 포로다...’라는 글귀에서 읽혀지듯, 회화는 그렇게 갈아엮어진 거칠거칠하고 울퉁불퉁한 토양으로부터 시작하며, 여기에 상징의 씨앗을 흩뿌려 회화의 대지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고자 한다. 작가에게 회화는 순수한 평면이기 위해 몰아낸 다양한 것들을 회귀시키는 장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더니즘이 이룬 성과 이전으로 퇴행 또는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정은의 그림은 깊이가 있지만, 그 깊이는 수많은 표층들로 이루어진 깊이이다. 내용이 있지만, 완결된 이야기를 가지지 않는다. 이정은의 그림은 스스로 평가하듯 ‘얕지만 단단하며’, ‘평면이지만 공간에 있는 듯’하고, ‘평평하지만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는’ 느낌을 준다.

이 독특한 공간감은 주체/객체의 이원 항을 넘어선다. 특히 큰 작품에서는 갖가지 경계를 무화시키는 깊은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화가의 친근한 벗인 음악은 그리기 이외의 휴식 시간마저도 몰입을 지속하게 했을 것이다. 큰 작품은 물론 작은 작품들 역시 광대한 표면에서 떠도는 느낌을 준다. 현대의 페미니즘과 심리학에, 뫼비우스 띠처럼 안팎이 구별되지 않는 육체와 정신의 새로운 또는 대안적 모델(엘리자베츠 그로츠, 자크 라캉)이 있는 것처럼, 우주 또한 하나의 표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철학에서도 원형과 그 복제에 근거한 플라톤적인 이원주의를 일원론적(=다원론적) 실재로 해체하기 위한 흐름이 있으며, 들뢰즈와 가타리가 대표적이다. 마누엘 데란다는 들뢰즈의 사상을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으로 정리한 책에서, 하나의 표면을 그자체로서 하나의 공간이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개진한 가우스를 따라서 표면을 공간자체로서 연구한다는 발상이 리만에 의해 더욱 상세히 연구되었다고 지적한다.

현대물리학에 큰 영향을 준 수학자 리만은 n 차원의 표면들 또는 공간들을 연구했으며, 이 n 차원 곡(曲) 구조들(curved structure)은 그자체내의 특징들을 통해서만 정의된다. 데란단에 의하면, 들뢰즈가 본질이라는 개념 대신에 쓰는 '다양체(multiplicity)'는 이러한 구조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에 의하면, 들뢰즈의 존재론에 있어 하나의 종(種)은 그것의 본질적 특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발생시키는 형태 발생적 과정에 의해 정의된다. 종들은 시간을 배제한 범주를 표상하기 보다는 역사적으로(시간적으로) 구성된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종에 대한 본질주의적 설명이 정태적이라면, 형태 발생적 설명은 동태적이다. 다양체들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존재들인 본질과는 다르며, 영원한 원형들의 저장소와는 다른 연속적인 공간을 형성해 서로 엉겨 붙게 되는 식별불가능성의 지대를 창조함으로써, 그것들의 동일성을 와해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본질 개념은 통일되어 있고 시간초월적인 동일성을 함축하는 반면, 다양체는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전부 한꺼번에 주어지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의되는 동일성을 함축한다. 차이들에 의해 함께 짜이는 다양체들을 영원한 원형들과 혼동되지 않는다. 다양체는 발산하는 실재화들(realizations)을 함축한다. 실재화는 주름처럼 접혀지고 펼쳐지는 일원적 과정을 말한다. 데란단에 의하면 '수학

적 다양체(manifold)' 개념과 밀접한 들뢰즈의 다양체의 개념은 현실성이 분화되어 나오는 잠재성을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데란다는 다양체를 '가능성들의 공간'으로 규정한다. 다양체들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인 혼효면(plan of consistency)들의 집합처럼 보이는 이정은의 그림은 다양체들의 연속체를 상상하게 한다. 거기에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많은 중심이 있다. 각각이 자족적인 우주를 이루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대우주를 이루는 그림에는 생성과 소멸사이에 놓여있는 미지의 개체들이 산재해 있다.

회화라는 정지된 매체 속에서 작가는 이전 것들의 잔해와 흔적이 다시 뭉쳐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암시한다. 겹겹이 뿌리는 작업의 연속은 점을 선으로, 선을 표면으로, 표면을 표면들로 뒤덮는다. 얼룩들 사이에 선적인 요소는 기호 같다. 바탕과 기호들의 관계를 통해 풍경 같은 형상이 감지된다. 천체를 떠올리는 둥근 기호는 이 풍경을 우주적 풍경으로 만든다. 원을 빼고 완전한 기호는 발견되지 않으며, 파편화된 기호가 궁극에는 조화롭게 짜 맞춰질지도 모를 퍼즐조각 같이 편재한다. 신이 우주에 써놓은 문장들은 오랜 시간의 흐름을 타고 흐릿해졌다. 성스러운 존재의 연쇄는 끊어졌다. 끈과 구슬은 다시 꿰어질 이야기를 위해 우주를 떠돈다. 작품 여기저기에 떠 있는 검은 원들은 끝없는 이야기의 마침표처럼 보이며, 시공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블랙 홀로 다가온다. 또는 앞으로 뒤로, 그리고 사방으로 확장하는 공간 감 속에서 앞쪽으로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입자 같다.

즉 그것의 일부는 이미 화면 밖으로 튀어나와 우리는 그 단면을 보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는 2차원은 물론 3차원도 넘나드는 듯한 유희가 있다. 다른 작품에 있는 초승달(들)은 원을 만월처럼 보이게 하면서 변화무쌍한 시공간의 축을 암시한다. 얼룩은 원으로 자라나며, 원 또한 얼룩으로 해체될 것이다. 잔해들은 먼지가 되어 흩어지거나 낙진이 될 것이며, 또 다른 생성의 원료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먼지에서 태어난 우주의 상이 있다. 각 작품들에는 잠재적 움직임이 있으며, 이 관계는 작품들 간에도 성립된다. 무한한 층위들 속에서 형태와 형태, 색과 색이 밀고 당겨진다. 이번 전시 작품의 주조를 이루는 블루와 레드 계열의 색은 물과 불, 차가움과 뜨거움, 음과 양, 새벽과 황혼, 심해와 대

지, 이성과 감성, 반성과 몰입, 질서와 무질서, 현대와 원시, 형태와 해체, 가까워지는/멀어지는 우주, 탄생하는/소멸하는 별, 정적인/활동적인 힘 같이 상보적 관계를 통해 총체적 우주의 지도를 그린다.

상보적인 요소들 간의 밀고 당김이 있을지언정, 둥근 태극문양 같은 하나로 환원 또는 화합은 없다. 작은 하나들이 모여서, 또는 큰 하나로,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을 듯 넉넉한 화면은 초월이나 화해보다는 긴장감과 생동감에 방점이 찍힌다. 많은 요소들이 부유하고 떠돌지만, 죽은 듯한 씨가 움트듯, 홀연히 한 송이 꽃이 피듯,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절묘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면과 면의 만남은 접혀진 종이처럼 의외의 만남을 주선하며 사건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장면에서의 사건의 현실의 사건사고와 달리 유쾌하며 널리 고무된다. 시작은 화가가 하지만, 그림은 스스로 완성 된다. 작가는 그림 스스로 가는 과정을 조율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림은 그리는 만큼이나 기다리는 과정이, 만드는 만큼이나 만나는 과정이 된다. 그것은 끝없는 대화이다. 결론이 없다고 무익하지는 않다.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그 수많은 유익한 이야기가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볼 때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유익한' 이야기란 아전인수(我田引水)처럼, 말하는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독백 스타일의 말은 소외와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림은 타자와의 끝없는 대화일 뿐 아니라, 가려는 길과 온 길이 뒤엉킨 복잡한 지도가 된다. 지도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기호로 채워져 있지 않고, 무수한 시간간의 내력을 담은 얼룩덜룩한 화면 위에 파편화된 채로 부유한다. 점과 선을 막 뿌린 바탕에 떠있는 유일하게 온전한 형태인 원은 천체나 마침표 등을 연상시킨다. 이 단색의 원은 카오스같이 부글거리는 바탕 면 위, 맨 마지막에 그려지며, 다른 형상들에 비해 에너지가 응축되어 보인다. 그것은 수많은 재질거림과 아우성을 침묵하게 한다. 그러나 무거운 느낌이 없기에 억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작가말대로 '마침표지만 쉼표' 같다. 안정된 원조차도 그 공간적 위상이 다양하여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대적이다.

그것은 원초적 혼돈 속에 떠 있는 작은 섬, 또는 부표처럼 보인다. 그것은 정지나 질서가 더 큰 움직임이나 무질서 속에서 한순간 이론 균형에 불과함을 알려준다. 그 밖의 기호들도 자연적, 인위적 기

호들에서 온 것이다. 기호들은 송신자와 수신자와의 시공간적 거리가 너무 멀어져 모호해진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모호함은, 탄생이 있으면 변화와 소멸이 있는 모든 기호들의 운명이다. 작가의 스케치북에 단상처럼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드로잉들은 회화에서 뿌려진 씨앗 같은 역할을 한다. 물론 그 씨앗은 콩에서 콩 나고 팥에서 팥 나는 식의 동일성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다. 두툼한 스케치 북에는 기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자라고 있으며, 그것이 맞닥뜨린 환경에 따라 무엇으로 발현될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잔뜩 숨겨져 있다. 거의 폭발에 가까운 힘을 받아 조각난 상징의 파편들이 조화롭게 짜 맞춰져 우주와 삶의 비밀을 알려주는 온전한 상징으로 완성되는 것은 언제쯤일까.

이정은의 작품은 그 과정이 영원히 지속되며 태초, 또는 종말의 지점이란 영원히 유예될 것임을 예시한다. 그녀의 그림은 시작과 끝의 중간에 있는 과정중의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과 끝은 신만이 아는 진실이며, 세상에 홀로 떨거진 인간은 생명과 우주가 흘러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 과정을 덧없이 지나치는가, 매순간의 완성을 통해 조금씩 차이의 계열을 만들어가면서 창조의 비밀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가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예술가나 과학자는 자신이 만든, 또는 공통의 규약을 통해 게임하면서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실험한다. 그들은 끝없는 실험을 통해 잠재적인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잠재적인 것은 무한하고 현실적인 것은 유한하다. 무한에서 무한으로, 유한에서 유한으로의 평행이동이 아니라, 무한과 유한 사이의 교차적 관계가 중요하다. 끝없이 초월만 외치거나 당면한 현실에만 충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억압적이다.

예술은 이 양극단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예술을 수단으로 무엇인가를 이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술 속에서 사는 무상의 삶 자체를 향유할 수 있을 때 예술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도처에 예술을 거세하고 길들이려는 압박이 있으며, 지배적 제도를 내면화한 무늬만 작가인 군상들도 넘쳐난다. 작업에의 몰두라는 핵심만 빼고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그들 말이다. 동양 화처럼 바닥에 죽 펼쳐놓고 하는 이정은의 작업은 큰 스케일의 경우 작품 그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 작은 스케일의 경우도 조합적 배열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다. 환경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된 장에서 수많은 게임의 수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깊은 몰입의 과정은 유한과 무한 사이를 넘나들게 한

다. 작가는 캔버스보다는 바닥에도 길게 드리울 수 있는 거대한 걸개그림 같은 형식을 생각하며, 화면이 사각형이 아니라 원 이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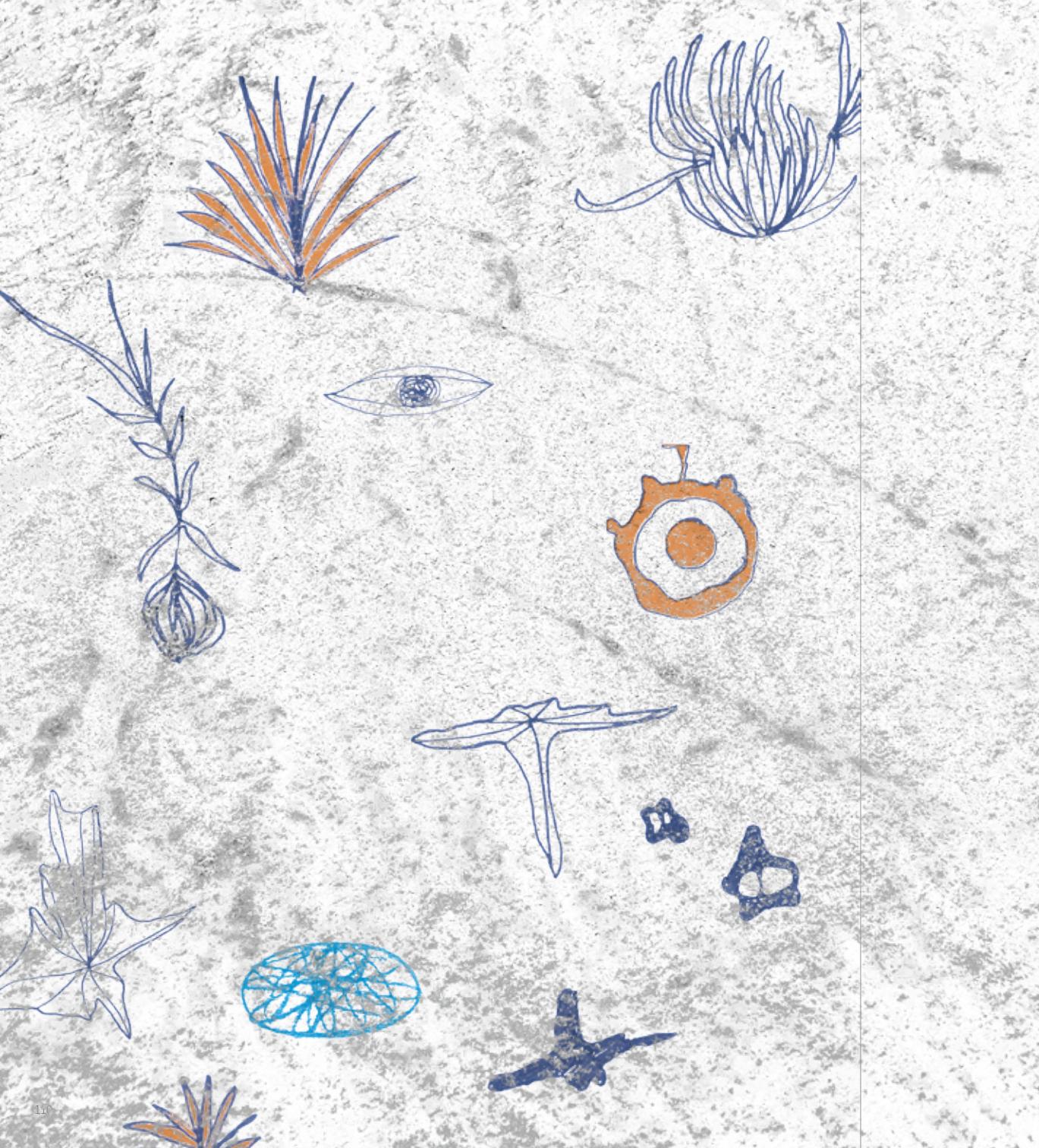
‘심표 같은 마침표’, 즉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도 하나의 마침표로 완결될 수 있는 소우주로서의 예술은 매력적이다. 적절한 순간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을 작가가 신처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와 과학자들은 신을 흉내 낼 수 있는 부류들이다. 그러나 예술은 과학자들처럼 분업시스템을 통한 것이 아니라, 홀로 그 과업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공유되지 않는 언어로 매번 그 총체적인 우주의 상을 시도하고 때로 희열도 맛본다. 영원한 하나의 상과 그것의 재현에 집착하는 관념론을 거부하는 현대의 작가에게 남은 것은 ‘반복과 차이의 유희(니이체, 들뢰즈)’ 일 뿐이다. 반복과 차이의 유희 속에서 영원히 회귀하는 것이 필연이다. 필연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할 미완의 과제로 던져진다. 이정은에게 예술은 그 과정을 기록하는 거듭해서 씌여진 파피루스와도 같은 장이다. 한국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일본에서 벽화를 연구한 작가의 화면은 오래된 벽 같은 느낌을 주는 다양한 형식적 장치를 구사하고 있다.

이정은의 그림이 동양화 같은 느낌도 주고 어떤 부분은 동양화 붓을 쓰기도 하지만, 그녀의 그림은 동양화처럼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닌, 수많은 흔적들이 축적된 오래된 사물 같은 표면을 그림을 통해서 구현하려 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서양화처럼 두텁게 쌓이지는 않는다. 완전히 덮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교차된다. 그래서 이정은의 작품은 이상적인 예술작품이 그렇듯이,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지고,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리고, 읽을 때 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예술은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을 중시한다. 이정은의 그림에 종종 나타나는, 자연과 과학에서 유래한 선적 기호들처럼 무한한 점근선, 또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갱신처럼 문제를 새롭게 배열함으로써 답을 구하려는 새로운 좌표축의 설정이다. 한지와 석회, 모래로 밀 작업을 하는 과정은 그리는 과정 못지않게 많은 공력이 들어가며, 그 자체로 추상 회화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벽은 벽에 불과하다. 창문에서 벽으로 ‘진화’한 현대회화의 궤적은 심도에서 표면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많은 현대 화가들이 이 막다른 길에서 벽의 표면만을 가다듬는 공예가의 길로 선회했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이 회화가 다시금 살아야 할 필연성을 부여한다. 살아야 할 회화의 대지에 조각난 상징의 파편들이 산재한 이정은의 작품은 카시러가 상징을 정의하듯이, ‘표현에 의해 외부 대상을 고정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 다시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매개’이다. 작가는 그렇게 회화의 대지에 여러 겹의 층위를 주고 씨를 뿌리듯이 물감을 흘뿌린다. 비옥한 대지만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씨까지 뿌리는 이미지가 여성적이면서도 남성적이다. 화면에 깊이와 질감을 주는 재료가 의미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색과 형이 바탕에 안착되었을 때이다. 그것은 우연을 필연으로 고양시키고 불안정한 과정을 일순간이나마 고정시키는 형식적 장치이다. 그러나 오래된 벽 같이 단단해 보이는 바탕은 그 위를 지나가는 색과 형태를 고착시키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견고함과 유동성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밀 작업을 포함하여 수많은 층들에 산포된 이미지들이 상호작용하는 화면에는 깊이가 있지만, 그 깊이는 그저 하나의 심연으로 몽롱그려지는 막연한 깊이가 아니라, 많은 표층들로 이루어진 깊이이다.

이러한 표층들은 안팎의 뒤집힘에 유동적이다. 이전시대를 특징짓는 심층의 모델-본질/현상, 무의식/의식 등-은 표층들로 해체된다. 저 깊숙이 있다고 가정되는 핵심적 무엇을 재현하지 않고, 유동적 표층에서 부유하면서 생멸한다. 화석이나 지층, 단층처럼, 이정은의 작품에 내재한 시간성은 불확정성을 높인다.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투명함이 겹쳐서 만들어진 불투명함이지, 혼돈에서 혼돈으로 끝나는 맹목적 과정이 아니다. 어떤 시간이 공간화 되었을 층, 어떤 공간이 시간화 되었을 층들이 공존하면서 공명한다. 그 중 어떤 것이 앞으로 당겨질지, 어떤 것이 뒤로 물러날지는 매번 다르게 다가온다. 마치 작가가 즐겨 듣고 직접 연주하기도 하는 음악처럼 말이다. 이정은이 시각을 통해 들려주는 소리는 재연보다는 즉흥에 가깝고, 단성보다는 다성(polyphony)에 가깝다. 하나의 선율에도 무수한 변주가 있을 수 있다. 벽화처럼 단단하면서 인터페이스처럼 동적인 느낌을 주는 이정은의 그림은 청색 씨실과 홍색 날실로 짜여진 우주 같은 상보성의 원리에 다가간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 안의 독을 다스리는 일이다.
내 안에 들어 있는 독이 점점 혈관을 타고 영혼을 잠식하려 할 때,
오만한 그녀의 힘을 빌어 알게 자맥질치는 생의 맥박을 살려낸다.
작업 또한 일종의 독. 적당한 독이 또 다른 변종의 독을 해독하고,
시름으로 깊어진 사람의 남루한 지친 영혼을 부풀린다.
영혼의 깃털만큼 한숨에도 자칫 날아가 버릴 중력의 무게를 내려
놓고 한 숨을 쉬다.
아주 깊은 숨.
이 땅에 붉은 네발을 딛고 거둬 닦쳐오는 삶이라는 놈을 살아가
기 위해서…….”

이 책은 2015년 6월 3일~17일까지 가회동60에서 기획한
〈생각을 쫓는 눈 : 이정은 展〉을 진행하며 제작, 발간한 것으로
작가의 추상적인 작품세계를 엿보는 작가의 작업노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정은 작가의 글은 자신의 세계를 보는 눈과 생각의 궤적들이 담겨있는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 글쓰기 방식으로,
작가의 작품과 한 몸을 이루는 시적인 글이다.
그의 작품세계를 이끄는 두 가지 힘은
멈추지 않는 질료 실험과 미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의식이다.

생각을 쫓는 눈 : 夜想別曲

이정은 LEE JUNG EUN

leeje0719@hanmail.net

가회동60_GAHOEDONG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60번지

02-3673-0585

gahoedong60@gmail.com

www.gahoedong60.com

기획 가회동60 김정민, 손진우

그림/글 이정은

평론 이선영

사진 baufoto.co.kr

디자인 DESIGN60

인쇄 청산인쇄

발행 ECHO60 ISBN 979-11-85191-16-4 93600 가격 10,000원

© 2015 LEE JUNG EU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수록된 이미지와 글은 작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